



▲ 정 종 삼 현장소장

모든 가시설물 본공사 처럼! 근로자 안전 기반 탄탄

- 두산산업개발(주) 남양주 녹촌두산위브아파트 현장 -

겨울을 재촉하는 찬 기운에 나뭇가지에 매달린 마지막 잎새마저 새 생명을 위해 땅으로 녹아들 준비가 한창인 남양주시 녹촌리 어느 야산에 자연과 더불어 사람의 안녕을 위해 깨끗한 안전의 기운을 불어 넣는 곳이 있다. 두산산업개발 두산위브의 축적된 기술력과 시공 노하우를 집적시킨 “남양주 녹촌 두산위브 아파트(정종삼 현장소장)” 현장이 바로 오늘 찾은 현장으로 오늘도 새로운 생명이 태동하듯 활기찬 안전활동과 함께 무재해 하루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청정지구에 아름다운 주변 자연환경이 자랑하듯 현장 첫 머리부터 청결하고 반듯한 안전통로가 이곳 현장의 안전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깨끗하고 쾌적한 현장, 안전한 현장

직원들 중 객지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은 이 곳. 그들에게 가정과 같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오늘도 노력하고 있는 녹촌리 현장에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정리정돈으로 건설현장 같지 않은 현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모든 가시설물을 본공사처럼 안전하고 쾌적함에 중점을 두고, 부대토목, 조경시설을 선시공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선 창출한다.

현장 특성상 산악지형인 이 곳은 절토작업으로 발생한 단차가 심하고, 경사가 평균 10%로 낙석과 토사붕괴 위험이 곳곳에 노출되어 있어, 흙막이벽 및 경사지에 안전난간과 각종 안전표지판 설치, 2중 덮개 설치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부분으로 근원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단차내 도로공사와 조경석공사 선시공이다. 높은 경사와 단차에서 오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



은 물론 현장을 더욱 깨끗하게 하고, 먼지 없는 건설현장을 꾸미는데 초석이된 부대시설 선시공은 특히 우기때에도 붕괴의 걱정을 덜 수 있었고 선 조정시설로 건설현장 같지 않은 쾌적함과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어 근로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불안진행동을 근절 시킬 수 있었다. 결국 오늘까지 무재해 현장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인 것이다.

안전에도 함께하는 협력사

우리나라 산업재해 감소의 Key는 협력사 안전관리에 있다. 그 만큼 이들업체에서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곳 현장에서의 안전은 협력사와 함께 참여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이른 아침체조는 100% 참여를 지향하여 아침체조가 끝나지 않으면 현장에 전원을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관리된다. 다소 강압적인 면은 있으나 그 만큼 아침체조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 곳 현장에서의 조치이다. 그러나 이처럼 강한면 뒤에는 근로자를 먼저 생각하는 이 곳 사람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현장에 설치된 여성근로자 전용화장실이다. 여성근로자라면 건설현장에서 적은 수의 인력이다 보니 남성근로자에 비해 복지나 혜택에 있어 다소 소외된 것이 사실이었으나 이 곳 현장은 15명의 여성근로자를 위해 현장 2개소에 여성전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작은 배려로 근로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 밖에도 협력사 사무실환경이 다르고, 아스팔트 도로와 그 옆으로 반듯하게 설치된 안전통로, 휴게실이 인상적이다. 특히 협력사 사무실은 컨테이너 박스로 일관하는 어느 건설현장과는 다르게 같은 형태의 쾌적한 사무실을 설계·분양하여

함께 사용하고 있어 협력사를 수평 관계로 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협력사 중심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안전관리비 책정에서도 나타나는데, 협력사와 계약 체결시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여 자율적으로 사용토록함은 이곳 현장안전관리 중심에 협력사가 있었다.

우리를 떠나 전사적 안전 추구


두산산업개발(주)는 전사적 안전을 추구하고, 이에 따른 안전시스템이 다양하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이 안전점검 부분이다.

상반기 전 현장을 점검·평가하여 안전관리 순위를 공개하는데, 이 곳 현장은 하반기 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다. 쾌적하고 안전한 현장만들기가 큰 몫을 차지하였을 것이라 짐작이 간다.

상반기 점검 외에도 본사 안전환경팀에서 시행하는 연 4회 불시점검과 본사 시공팀내 시공에 있어 안전을 별도 지원해주는 안전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에서 연 2회 점검 등 평균적으로 현장당 월 1회는 본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는 셈이다. 여기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지속성 있는 전사적 현장 안전관리에 포인트가 있었던 것이다.

이밖에도 두산산업개발(주) 전국 현장을 9개 그룹으로 나뉜 지역협의체는 전현장 안전 수준을 평준화 시키고, 우리를 떠나 함께 무재해 두산산업개발(주)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처럼 특별하지는 않지만 작은 가시설 공사에 있어서도 본공사처럼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근원적인 안전에 중점을 두고 하루 하루 안전시공을 하고 있는 이곳 현장을 총 지휘를 하고 있는 정중삼 소장은 이곳 현장이 두 번째 현장으로 소장으로서의 경력은 그리 길지는 않다. 그러나 15년 건설경력에서 체험한 경험을 토대로 근로자 중심의 안전을 오늘도 펼쳐가고 있다.

현장소장으로 지난 기간동안 무재해를 기록하고 있고, 이 곳 현장도 무재해 준공을 자신한다. 취재를 가지며 오늘 현장 첫머리부터 깨끗함을 보여 주듯 이 곳 현장은 앞으로 환경 속에 안전을 창출하는 새로운 개념의 안전을 건설할 것이라는 믿음에 한치의 의심이 가지 않는다. 

〈최종덕 기자〉

